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5, pp.123-162
<https://doi.org/10.29212/mh.2025..135.12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종의 왕권강화 시도와 지방군 징상(徵上)*

이선오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박사과정,

장규식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

- 목 차
1. 서론
 2. 갑오개혁 이전 지방군 징상의 경과
 3. 대한제국기 징상대의 설치와 운영
 4.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1885년 이후 등장하는 지방군의 징상을 통해 고종의 왕권 강화 정책이 지방군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오군란 이후 조선 정부는 중앙군 조직의 재건과 근대화를 동시에 진행했다. 고종은 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친위부대로 활용할 군대를 육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종은 신식 군사 훈련을 명목으로 지방군을 징상했다. 징상을 통해 고종은 청의 영향력 밖에 있는 새로운 군대를 육성하여 왕권 수호의 기반을 다지려 하였다.

* 이 논문은 2024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해서 작성되었음

갑오개혁으로 기존 지방군이 해산되면서 중단된 지방군의 징상은 대한제국 선포 이후 재개되었다. 이 시기의 징상은 지방 진위대 병력 일부가 도성에 상주하며 중앙군처럼 활용되었다. 원수부 체제에서 지방군 징상은 징상대를 황권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고종의 군사 정책을 상징하는 정책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군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고종은 지방군의 징상을 확대해 군축으로 폐지된 중앙 친위대의 공백을 메우려 하였다. 그러나 1907년 4월 징상대가 해체되어 시위대로 편입되면서 고종의 독자적인 군사 기반 확보 노력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고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단순히 원수부나 군부 같은 중앙 행정부서 뿐만 아니라 지방군도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Keywords) : 지방군, 고종, 징상(徵上), 진위대, 군사제도 근대화

1. 서론

1882년 임오군란으로 기존 중앙군 체제가 붕괴한 상황에서 조선 정부는 중앙군 재건을 포함한 군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 진행되었다. 당시 조선의 중앙군은 도성 내의 유일한 무력 조직이었기에 중앙군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중앙군 재건을 위해 정부는 기존 중앙군 병력뿐만 아니라 지방군 병력까지 활용하였다. 1883년 신설된 친군 전영(親軍前營)은 수어청(守禦廳)¹⁾과 함경도 남병영의 병력으로 구성된 군영이었다.²⁾ 친군 후영(親軍後營)에는 충주목의 병력이 합류하였다.³⁾ 1886년에는 기보중영(畿輔中營)⁴⁾에서 모집한 병력이 친군 좌영(親軍左營)에 배속되었다.⁵⁾ 그밖에 경기 연안의 해안 방어를 위해 설치된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이 부평에서 용산을 거쳐 남별영(南別營: 현 남산 한옥마을)으로 이동하면서 중앙군으로 성격이 변하였고, 1888년 친군 우영(親軍右營), 친군 후영과 함께 친군 통위영(親軍統衛營)으로 통합되었다.⁶⁾

1) 수어청은 본래 중앙군인 5군영의 일원이었지만, 정조 19년(1795년) 수어청 경청(京廳)이 혁파되고 광주유수가 수어사를 겸임하게 되면서 중앙군에서 제외되어 지방군영이 되었다. (『정조실록』 권 43, 정조 19년 8월 18일(병신)).

2) 배향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97~199쪽.

3) 『승정원일기』 고종 21년 6월 9일(신사).

4) 기보중영은 경기도 중영으로 경기도 양주 일대를 관할하는 지방군이었다. 영장은 양주목사가 겸임했다. (『대전회통』 「병전」 외관직조).

5) 『승정원일기』 고종 23년 1월 16일(경술).

6) 배향섭, 2002, 위의 책, 233~234, 264쪽.

1885년부터는 중앙군에 흡수되지 않고 지방군의 성격을 가지면서 수도에 일시적으로 주둔하는 지방군의 징상(徵上)이 시작되었다. 지방군이 도성에 불러 올라오는 일은 조선 시기에 종종 있었던 일이었다. 1885년 이전 지방군의 도성 소환은 전시나 비상시에 도성 방위나 국왕 호위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885년 이후에는 조련 및 숙위 명목으로 평시에도 이루어졌다는 점이 차이점이었다.

1885년부터 중앙 친군영의 군제를 적용한 지방 친군영이 설치되면서, 평양과 청주 등지에 신설된 지방 친군영이 ‘징상(徵上)’ 또는 ‘초상(招上)’ 명목으로 평시에 군사 조련이나 숙위를 위해 수도로 소환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지방군의 징상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기존 군영이 모두 폐지되면서 중단되었다.

지방군의 징상은 1897년부터 재개되었고, 1899년 이후 수도에 상주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나아가 1901년 이후에는 ‘징상대(徵上隊)’라는 새로운 군영의 명칭이 등장하였다. 1907년도 군부 예산 세부 항목에 ‘징상대’ 항목이 별도로 설정된 데서 살필 수 있듯이, 이 무렵 징상대는 사실상 독립된 군대로 운영되었다.⁷⁾

지방군의 징상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지방군의 징상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졌던 시점이 고종이 왕권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군의 징상이 고종의 왕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항 이후 지방군 운영은 고종의 왕권 강화 정책의 반경 안에 있었다.

이렇듯 지방군의 징상은 1885년 이후 조선의 군제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개항 후 군사제도를 다룬 연구 가운데 지방군의 징상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고종 재위기 군사제도와 관련한 연구로는 이 시기 군사제도가 어떻게

7) 『관보』 광무 10년 11월 22일자.

개편되었는지를 다룬 연구,⁸⁾ 고종의 왕권 강화 정책과 관련해 군사 행정 부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다룬 연구⁹⁾ 등이 있다.

지방군에 관한 연구로는 갑오개혁 직전까지 유지되었던 지방 군제인 영장제에 관한 연구, 대한제국의 지방군 정책과 진위대에 관한 개별 사례 연구가 있다.¹⁰⁾ 그런데 영장제에 관한 연구의 경우 본 논문에서 다루는 지방 친군영에 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지방 진위대 연구는 해당 진위대의 설치 과정과 예산 등 제도상의 운영에 집중한 관계로 지방군의 징상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그밖에 지방군 징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강화 지역 지방군을 대상으로 지방군이 중앙 권력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다룬 논문이 있다.¹¹⁾ 지방군

-
- 8)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해안, 2000 ;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9(근·현대 1)』, 육군본부, 2012 ; 최병옥, 『개항기의 군사정책연구』, 경인문화사, 2000. ; 김세은, 「개항 이후 군사제도의 개편과정」, 『군사』 2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1 ; 배항섭, 「개항기 친군영 체제 연구」, 『한국군사사연구』 3, 국방부 군사연구소, 1999.
- 9) 강다영, 「대한제국의 원수부 성립과 운용」, 『군사사연구총서』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2 ; 문준호, 「대한제국기 원수부 창설과 국방적 군사 운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엄태용, 「대한제국 원수부 연구」, 『육군박물관 학예집』 28, 육군박물관, 2021 ; 최병옥, 「고종대의 삼군부 연구」, 『군사』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 10)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영장제를 중심으로-』, 해안, 1999 ; 김기성, 「대한제국기 진위대 증설의 재정적 영향」, 『역사와 현실』 90, 한국역사연구회, 2013 ; 서태원, 「대한제국기 원주 진위대 연구」, 『역사와 담론』 37, 호서사학회, 2004 ; 「갑오개혁 이후 충청북도 지방군-청주지방대와 진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36, 한국사연구회, 2007 ; 「갑오개혁 이후 수원 지방대·진위대 연구」, 『역사와 실학』 48, 역사실학회, 2012 ; 「강화지방대 강화진위대 연구(1896~1907)」, 『한국사연구』 168, 한국사연구회, 2015 ; 성강현, 「대한제국 진위대 연구」, 『육군박물관 학예집』 28, 육군박물관, 2021.
- 11) 김항기, 「개항기(1876~1910) 중앙권력의 江華지역 군대 활용 양상 변화와 그 성격」, 『동국사학』 78,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징상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평양 지역 지방군에 관한 사례 연구 한 편이 있을 뿐이다.¹²⁾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개항기 지방군 징상과 관련해 1885년 이후 진행된 지방군 징상 관련 기록을 통해 이 시기 징상의 실태와 목적을 살펴보고, 고종의 왕권 강화 정책이 지방군의 개편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갑오개혁 이전 지방군 징상의 경과

가. 번상병의 폐지와 중앙군·지방군의 분리

개항기 지방군의 징상은 지방군영에 소속된 군인들이 평시에 군사 훈련, 도성 방위 등을 위해 수도로 불러 올라오는 것을 의미한다. 1885년 이후 지방군 징상이 등장하게 된 사정은 이 시기 조선 중앙군 병력 동원 체제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조선 초기 중앙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병종은 갑사(甲士)와 정병(正兵)이었다. 이들은 모두 수도에 상주하는 병력이 아니라, 지방에서 군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차례에 맞춰 상경한 번상병(番上兵)이었다. 갑사와 정병은 하번(下番) 시 본가로 귀환하여 거주 지역의 지방군으로 편입되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았다.¹³⁾ 갑사와 정병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조선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전 병력을 중앙에서 관리하고자 했다. 따라

12) 이선오, 「대한제국기 평양 진위대의 설치와 운영」,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3.

13) 김정웅, 「조선초기 군사들의 하번(下番) 시 복무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146, 육군군사연구소, 2018, 127~129쪽.

서 조선 초기 조선군은 도성 방위와 지방 진무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五衛’라는 하나의 군영으로 통합되어 있었다.¹⁴⁾

이러한 군사 체계는 임진왜란 이후 중앙군과 지방군이 점차 분리되면서 변하기 시작하였다.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수도 방위를 전담하는 중앙군영이 등장하였고, 훈련도감의 병력을 지방 번상병이 아닌 도성 안팎에 거주하는 직업 군인인 장번병(長番兵)으로 구성하면서 기존 지방 군정(軍丁)에 부과된 중앙군 복무 임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조선의 군대는 도성 방위 임무를 맡은 중앙군과 지방 진무의 임무를 가진 지방군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중앙군에서 번상병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훈련도감과 같이 직업 군인으로 구성된 군영은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에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훈련도감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큰 규모의 병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영청과 금위영을 번상병으로 구성했다.¹⁵⁾

그런데 금위영, 어영청을 통해 유지되던 번상병 체제는 1794년 이후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1794년 화성 축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번상병 중 매 번(番)에 135명씩, 총 3,375명의 상번을 15년간 중단하고 대신 그들에게서 정번전(停番錢)을 거두었다.¹⁶⁾ 15년 기한의 만료가 다가오던 1808년 조정은 중단했던 번상병의 상번을 재개하지 않고 이전처럼 군포를 거두었다. 대신 한성부 일대에서 금위영과 어영청 병력으로 135명씩을 새로 모병하여 장번병으로 삼았

14) 김용호, 『조선초기 중앙군 운용 연구』, 경인문화사, 2023, 98~109쪽.

15) 김중수,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訓練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혜안, 2003, 302~305, 326~335쪽.

16) 정확히 표현하자면 화성 축성 재원 확보를 위해 장용영, 균역청 등에서 대출한 돈 일부를 금위영과 어영청의 정번전(停番錢)으로 갚았다.(『정조실록』 권 43, 정조 19년 7월 15일(갑자)).

다. 상비병력 5초 가운데 1초의 군사가 장번병으로 대체됨에 따라 번상군은 5초에서 4초로 줄어들었다.¹⁷⁾

조정은 재정상의 문제로 금위영·어영청의 번상군에 대한 제번(除番)을 1816년부터 모든 지방 번상병에 적용하였다. 최초 15년 기한으로 시작한 제번은 이후 20년씩 추가로 연장되었다. 1869년에 이르러서는 번상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조정에서는 대신 금위영과 어영청에 각각 4초의 병력을 추가로 모병하여 상비병력 5초를 모두 장번병으로 구성하였다.¹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의 중앙군에서는 지방 번상병의 존재가 사라졌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군인은 오로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방위 임무에만 투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써 평시에 지방에 거주하는 군인이 상경할 이유는 중앙군영으로의 입대를 제외하면 없어졌다. 조선군 병력 동원 체제의 이 같은 변화는 1885년 이후 지방군 ‘징상’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나. 중앙군의 개편과 지방군 징상의 시작

지방군 징상은 1885년 5월 평양의 친군 서영(親軍西營) 병력을 징상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앞서 평안감사 민응식은 1884년 10월 1,200명의 병력을 선발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1885년 3월에 고종은 이들의 훈련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성으로 소환하고자 했다.¹⁹⁾ 이들 병력은 1885년 4월 20일 친군 서영으로 편제되었고, 그 가운데 700명의 병력이 5월 고종 참관 하의 군

17) 『순조실록』 권 11, 순조 8년 8월 6일(기해).

18) 배항섭, 2002, 앞의 책, 28~29, 48~50쪽.

19) 『승정원일기』 고종 21년 11월 23일(계해), 12월 6일(병자) ; 『고종실록』 권 22, 고종 22년 3월 22일(신유).

사 조련을 위해 평안감사 민응식의 인솔하에 도성으로 올라왔다.²⁰⁾

평양에 친군 서영을 설치하고 그 병력 일부를 징상한 것을 시작으로, 1887년 3월에는 강화도의 군병을, 1888년 3월에는 충청병영의 병력을 각각 친군영으로 개편하기에 앞서 징상하여 조련했다.²¹⁾ 이후 친군 서영은 1894년까지, 친군 진남영은 1892년까지 1~2년에 한 번꼴로 징상되었다.

〈표 1〉 지방 친군영 병력의 징상 실태

징상부대		소환일자	귀환일자	비고
친군 서영	1회	1885.05.02.	1885.05.19.	규모 700명
	2회	1885.09.06.(경)	1885.12.13.	규모 미상 기보중영과 합동 훈련
	3회	1890.08.22.	1890.10.02.	규모 3초
	4회	1891.04.15.	1891.05.12.	규모 3초
	5회	1892.04.07.	1892.05.05.	규모 3초
	6회	1892.08.10.	1892.09.15.	규모 3초
	7회	1893.03.26.(경)	1893.04.18.	규모 3초
	8회	미상	1893.06.11	규모 미상 5월 서총대시 참가
	9회	1893.08.16.	1893.09.06.	규모 4초
	10회	1894.02.13.	1894.04.19.	규모 5초
친군 진남영	1회	1888.03.10.	1888.04.10.	규모 미상
	2회	1890.10.08.	1890.11.25.	규모 3초
	3회	1891.01.13.	1891.02.13.	규모 3초
	4회	1891.08.28.	1891.09.21.	규모 3초
	5회	1892.03.10.	1892.03.23.	규모 3초
친군 심영	1회	1887.03.21.	1887.04.28.	규모 미상
기보중영	1회	1885.10.10.(경)	1888.12.13.	규모 미상 친군서영과 합동 훈련

* 자료 :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20) 『승정원일기』 고종 22년 4월 20일(무자) ; 『고종실록』 권 22, 고종 22년 5월 2일(경자).

21) 강화도의 병력은 1887년 5월에 친군 심영(親軍沁營)으로, 충청병영은 1888년 9월에 친군 진남영(親軍鎭南營)으로 개편되었다.(『승정원일기』 고종 24년 5월 13일(기사), 25년 9월 7일(을묘)).

조선 조정이 지방 친군영을 불러온 연유는 임오군란 이후의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군사제도의 개편 시도와 맞물려 있었다. 임오군란 이후 조선의 중앙군은 청나라의 주도로 청군의 편제를 도입한 친군영(親軍營) 체제로 재편되었다. 1882년 10월 친군 좌영과 우영의 설치를 시작으로 1883년 10월 친군 전영, 1884년 7월 친군 후영이 설치되면서 조선의 중앙군은 친군영 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임오군란 이후 남아 있던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의 병력이 1884년 8월 친군 4영에 나누어 배속되면서 중앙군 체제가 친군영 체제로 확립되었다.²²⁾

중앙군 개편이 청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군대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이에 고종은 군대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견제할 자신의 친위 병력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잔존 5군영의 병력은 임오군란의 여파로 인해 친위군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종은 일본 육군 도야마학교(戶山學校)를 졸업한 조선인 교관에게 훈련을 받은 수어청과 함경도 남병영의 병력으로 친군 전영을 설치함으로써 친군 좌영과 우영을 견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오히려 중앙군 간의 갈등을 초래했고, 이는 갑신정변 과정에서 증명되었다.²³⁾

친군 전영을 통한 견제가 실패한 이후 고종은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직접 육성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친군 4영에 편입된 어영청, 금위영 출신 병력으로 친군 별영(親軍別營)을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친군 별영은 구식 군인들이 중심이었기에 중앙군으로서의 전투력이 다른 중앙 친군영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84년 11월 친군 별영을 제외한 중앙 친군영의 편제가 청군식 편제로 통일되고, 위안스카이(袁世凱)가

22) 최병옥,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경인문화사, 2000, 207~219쪽.

23)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9(근·현대편 I)』, 육군본부, 2012, 178~180, 183~187쪽.

친군 별영의 감독까지 맡으면서 중앙군에 대한 청의 영향력과 간섭은 더욱 커졌다.²⁴⁾

때문에 고종은 청의 영향력 밖에 존재하면서 본인의 친위부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군대를 찾아야 했다. 그 목적을 위해 고종은 중앙군영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신, 지방에 신식 군영을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지방군의 근대화를 청이 아닌 고종과 조정이 주도함으로써 신식 지방군을 고종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한 것이다.

중앙 정부 주도로 지방군의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국인 군사 교관이나 신식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을 교관으로 고용해서 지방에 파견해야 했다. 그러나 1885년 이전까지 지방군의 근대화 작업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관이 직접 교관을 초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²⁵⁾ 이러한 방식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군대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결국 중앙 정부 주도로 지방군에 대한 신식 군사 훈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군사 훈련을 담당할 교관을 파견하거나 지방군이 중앙으로 훈련을 받으러 주기적으로 올라와야 했다. 고종은 지방군 병력 중 일부를 징상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지방 군영 소속 일부 병력이 징상되어 군사 훈련을 받고 귀환하면, 그들이 본영에 잔류한 병력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배운 신식 군사 훈련을 전파할 수 있었다. 징상되어 신식 군사 훈련을 받은 병력이 중앙에서 파견하는 군사 교관 역할을 하는 셈이었

24) 육군군사연구소, 2012, 앞의 책, 198~201쪽 ; 배항섭, 2002, 앞의 책, 217~220쪽.

25) 대표적인 예시가 박영효의 수어청 병력과 윤용렬의 함경도 남병영 사례이다. 그 외에도 강화유수 김윤식이 군대의 근대화를 위해 위안스카이를 통해 영국과 프로이센의 군사 교관을 초빙하려 하였다.(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109~112, 129~130쪽).

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종은 지방군에 신식 군사 훈련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 신식 군사 훈련을 받은 지방군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중앙에서 징상을 통해 진행한 신식 군대 육성과 별개로 지방군영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육성하는 사업도 지속되었다.²⁶⁾ 대표적으로 경상감영의 친군 남영과 1893~1894년 사이에 친군영으로 전환된 북영(北營)²⁷⁾, 무남영(武南營)²⁸⁾, 진어영(鎭禦營)²⁹⁾의 경우 해당 지역 지방관 주도로 자체적인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다. 조정은 이들 부대에 ‘친군(親軍)’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친군영 체제로 흡수하였다.

이렇게 육성된 지방군은 유사시 중앙군과 함께 치안 유지를 위한 전력으로 활용되었다. 이 점은 1890년대 들어 활발해진 동학교도의 활동에 대한 조정의 대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92년부터 동학교도의 교조신원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조정은 지방 친군영을 활용하여 이들의 상경에 대비하고자 했다. 이는 충청도 지역 친군 진남영의 징상이 1892년 이후 진행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다.

1893년 3월에서 4월까지 보은에서 있었던 동학교도의 대규모 집회에 대응해 조정은 어윤중(魚允中)을 선무사로 파견하여 동학교도의 해산을 종용하였다. 동시에 친군 장위영 정령관 홍계훈(洪啟薰)이 이끄는 장위영 병력을 청주로 파견하고, 친군 심영을 수원에, 친군 서영의 병력을 용인에 파견하여 이들의 복진에 대

26) “군정 한 가지는 실로 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각 읍진의 별포군(別砲軍)이 있고, 또 남영(친군 남영)의 새로 설치한 병정이 있으니, 만약 평소에 양성한다면 넉넉히 외적을 방어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고종 29년 6월 29일(을묘)).

27) 안무영(함경도 북병영)에서 육성한 군대(『승정원일기』 고종 31년 4월 1일(정미)).

28) 전라 감영에서 육성한 군대(『승정원일기』 고종 30년 8월 14일(계해)).

29) 춘천 유수부에서 육성한 군대(『승정원일기』 고종 31년 3월 19일(병신)).

비했다.³⁰⁾

1894년 4월 제1차 동학농민전쟁³¹⁾이 발발하자, 조정은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이 이끄는 친군 장위영과 친군 심영 병력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전주의 친군 무남영이 황토현에서, 홍계훈이 이끌고 간 친군 심영 병력이 황룡촌에서 대패하자, 조정은 이원회(李元會)를 순변사(巡邊使)로 임명하고 친군 통위영과 친군 서영, 친군 진남영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였다.³²⁾

전주화약(全州和約) 체결 후 동학농민군이 해산하자, 전라도로 파병한 병력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은 본영으로 돌아갔다. 다만 친군 서영 병력은 평양으로 귀환하지 않고 도성에 잔류했는데, 이는 동학농민군 진압의 주력이었던 친군 장위영 병력을 대신해 궁궐 숙위에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할 때 친군 서영 병력은 경복궁을 방위하기 위해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³³⁾

이렇게 고종은 지방 친군영 병력의 징상을 통해 청의 간섭을 받던 중앙군과 별개로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독자적 군사 기반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 결과 고종은 유사시 도성 방위를 위해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는 신식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방 친군영은 고종의 예비대로서 간접적으로 왕권을 수호하는 군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30) 『고종실록』 권 30, 고종 30년 3월 25일(정미), 12월 30일(무인) ;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4월 8일(경신).

31) 본 논문에서 동학농민혁명 대신 동학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까닭은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의 구상에서 왕조국가를 넘어서는 근대국가의 비전이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혁명이란 용어 대신 19세기 농민항쟁의 완결판으로서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2) 『兩湖電記』 갑오 5월 초 1일 정축, 초 2일 무인.

33) 이선오, 「대한제국기 평양 진위대의 설치와 운영」,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6쪽.

다. 지방군 징상을 통한 고종의 권위 강화

지방군의 징상은 갑오개혁의 시작과 함께 중단되었다. 앞서 일본군의 경복궁 기습 점령으로 중앙군이 무장해제당하면서 고종의 군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었는데, 징상의 중단 또한 그 연장선이었다. 게다가 1895년 7월 기존 지방군영이 모두 폐지됨으로써 징상할 병력마저 존재하지 않았다. 갑오개혁으로 신설된 신식 지방군인 진위대의 경우도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이후 하삼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을 진압하는 데 투입되어 징상할 여유가 없었다.³⁴⁾

중단되었던 지방군의 징상은 1897년에 재개되었다. 징상된 지방군은 평양 진위대 소속 1개 중대와 해주, 강화, 청주 지방대 소속 각 1개 소대 병력이었다. 지방군 징상이 재개된 계기는 1897년 11월에 진행된 명성황후(明成皇后)의 장례식 때문이었다. 중앙군 개편으로 명성황후 발인 시 홍릉(洪陵)까지 장례 행렬을 시위할 군병이 부족해지자, 군부는 그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의 진위대와 지방대를 징상했다.³⁵⁾ 당시 중앙군인 친위대는 적지 않은 병력이 지방에 배치된 상태였고, 도성에 남아 있던 친위대 병력 역시 1897년 3월과 9월 시위대 설치를 위해 병력이 차출된 상태였다.³⁶⁾ 군부의 요청을 받은 탁지부는 평양, 개성, 강화, 청주, 해주, 전주 등 6개 군에 진위대·지방대 징상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³⁷⁾

34) 이선오, 2023, 앞의 논문, 6~7, 16~17쪽.

35) “軍部大臣 第三十五號 照會內概 因封時侍衛軍兵을 在京額數로 不可排定하야 鎭衛隊及地方隊兵卒을 不得不招來이온바 …”(『訓令編案』 2책, 건양 2년 4월 16일).

36) “親衛各隊中先抄演習之兵丁 今已嫻熟 行將內宿衛矣 隊號以侍衛隊爲稱”(『各部指令存案』 1책, 건양 2년 3월 17일).

37) 『訓令編案』 2책, 건양 2년 4월 14일, 4월 16일.

지방군의 징상은 이후 몇 차례 더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1900년 9월과 190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위대 병력을 징상해서 고종 참관하에 조련한 것을 들 수 있다. 갑오개혁 이전의 징상이 지방군을 조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데 비해, 이때의 징상은 민란 진압을 위해 타지방으로 파견되는 지방군의 훈련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1900년 9월의 징상은 그해 8월 성진(城津)에서 일어난 민란과 관련이 있었다. 성진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원수부는 민란 진압을 위해 북청 진위대 병력을 출병시켰다.³⁸⁾ 당시 북청 진위대는 삼수·갑산 일대의 국경 방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민란이 지속되자 북청 진위대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수밖에 없었다.³⁹⁾ 그 결과 함경남도 일대 국경 방위를 담당할 병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화 진위대 병력 100명을 함경남도에 파견한 것이었다. 강화 진위대 병력은 파견에 앞서 훈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도성으로 징상되어 군사 조련을 진행하였다.⁴⁰⁾

다음으로 1901년 6월 강화·수원 진위대의 징상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과 관련이 있었다. 제주 진위대 설치가 무산되면서 1901년 2월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이 길어지고, 그와 관련이 있던 프랑스가 제주도로 군함을 파견하자, 원수부는 민란의 조속한 진압을 위해 제주도에 강화 진위대와 수원 진위대 병력 300명을 파견하였다.⁴¹⁾ 이들 역시 제주도로 출병하기 전 징상

38) “移照元帥府^호와 轉飭北靑鎮衛隊^호시와 派送兵丁三十名^호야 出駐本港 刻^호시를 …”(『元帥府來去案』 1책, 光武 4년 8월 25일).

39) “靑隊半小九月四日到後 亂民衝火外村無數 秋夕大聚逆兵云 … 民事와 港情의 着急^호를 照諒^호오서 該鎮衛隊若干兵을 迅卽電飭添發^호와 到底 鎮壓^호야 致免滋擾^호케^호시를 爲要”(『元帥府來去案』 1책, 광무 4년 9월 8일).

40) “詔曰 關北出駐 江華隊 演操次 明日 平成門內 待令 侍衛 陪衛 諸般儀 節 并置之”(『관보』 광무 4년 9월 3일자).

되어 고종의 참관하에 훈련을 진행하였다.⁴²⁾

지방으로 출정하기 전 황제 앞에서 사열한 것은 진위대의 훈련 상태를 고종이 직접 점검하고, 병사들을 격려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고취하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더불어 진위대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대한제국 군대의 통수권자가 누구인지를 진위대 병사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고종은 군대에 대한 황제의 권위와 영향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1902년과 1903년 두 차례에 걸쳐 진위대 병력이 대규모로 징상된 일이 있었다. 이때의 징상은 여러 부대가 동시에 대규모로 징상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징상과 차이가 있었다. 1902년은 고종이 조선의 왕으로 즉위한 지 40년이 되는 해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02년 10월 18일에 대규모 예식을 계획했다.⁴³⁾ 1902년 7월 관병식(觀兵式)을 포함한 ‘어극 40년 칭경예식(御極40年稱慶禮式)’의 절차를 확정된 원수부는 8월 관병식을 위한 임시훈성여단(臨時渾成旅團) 편제를 발표하고, 훈성여단장에 육군 참장 이근택(李根澤)을 임명했다.⁴⁴⁾

그런데 1902년에 계획한 칭경예식이 당시 대한제국에 창궐한 콜레라로 인해 이듬해인 1903년으로 연기되었다. 연기된 칭경예식은 1903년 4월 30일에 다시 개막하기로 정해졌고, 관병식은

41) 서태원, 「강화지방대 강화진위대 연구(1896~1907)」, 『한국사연구』 168, 한국사연구회, 2015, 204쪽.

42) “詔曰 濟州出駐 江華隊 水原隊 演操次 再明日 大安門內 待令 侍衛 陪衛 入直 磨鍊”(『관보』 광무 5년 6월 23일자).

43) “我大皇帝御極四十年稱慶禮式, 以本年十月十八日擇吉, 本署理大臣恭錄四月二十四日詔書, 另附備文照會貴公使, 請煩查照, 轉達貴政府可也. 須至照會者”(「大皇帝御極四十年稱慶禮式舉行의件」, 『구한국의외교문서』 5권, 日案 3, 광무 6년 5월 3일).

44) 『관보』 광무 6년 8월 27일자.

5월 4일 경희궁에서 거행하기로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1903년 3월 원수부는 1902년과 같은 임시훈성여단 편제를 발표하고, 발표된 편제에 맞춰 여단장에 원수부 기록국 총장 육군 참장 주석면(朱錫冕)을 임명하고 병력을 차출하였다.⁴⁵⁾ 그런데 1903년 4월의 칭경예식 역시 영친왕의 천연두 투병으로 인해 9월 26일로 연기되었다가, 대한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자 결국 완전히 취소되었다.⁴⁶⁾

관병식을 위해 조직된 임시훈성여단은 보병 2개 연대와 기병, 포병 각 1개 중대로 구성되었다. 각 보병 연대에는 보병 3개 대대가 배속되었다. 다만 관병식을 위한 임시 편제라 중대 이하 편제는 당시 대한제국군의 표준 편제보다 5개 소대가 감편된 5개 중대-15개 소대로 구성되었다. 1903년 구성된 임시훈성여단의 경우는 1902년보다 1개 중대가 더 감편된 4개 중대-12개 소대로 편제가 규정되었다.⁴⁷⁾

〈표 2〉 칭경예식 관병식을 위해 차출된 장교 수

		1902년 9월			1903년 3월		
부대	소속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시위대	시위 1대	1	4	10	1	2	5
	시위 2대		3	12		3	4
	시위 3대		4	13		1	5
	총합	1	10	35	1	6	14
친위대	친위 1대		4	7		2	2
	친위 2대	1	3	9	1	3	4
	친위 3대	1	2	9		2	3
	총합	2	9	25	1	7	9
진위대	1연 1대		1	8		1	7
	1연 3대						1

45) 『관보』 광무 7년 3월 3일자.

46) 최창언, 『대한제국의 기념 사적과 칭경예식의 관병식을 위한 연구』, 한국 학술정보, 2021, 170~174쪽.

47) 최창언, 2021, 위의 책, 170~171쪽.

	2연 1대						
	2연 2대				1		
	2연 3대		1	4			
	3연 1대	1	1	1		1	2
	3연 2대					1	1
	3연 3대						
	4연 1대		2				1
	4연 2대					4	
	4연 3대	1					7
	5연 1대		1	7			8
	5연 2대		1	2		1	2
	5연 3대						
	6연 1대						
	6연 2대						
	총합	2	8	22	1	8	29
무관학교	교관		2			1	
	학도대		1	8			
	총합		3	8		1	
헌병대	1						
무소속					3	2	20
총원	6	30	90	6	24		72

* 자료 : 『관보』 광무 6년 9월 4일, 7년 3월 16일, 27일자. (단위 : 명)

임시훈성여단 구성을 위해 원수부는 중앙군인 시위대와 친위대뿐만 아니라 지방군인 진위대에서도 병력을 차출하였다. 다만 국경 지역에 배치된 진위대(진위 제5연대 제2대대, 제3대대, 진위 제6연대 제1대대, 제2대대)의 경우 임시훈성여단 구성에서 최대한 배제하고자 했다.

〈표 2〉에서 살필 수 있듯이 임시훈성여단에 차출된 진위대 병력은 1902년 22개 소대, 1903년 29개 소대였다. 당시 1개 중대는 4개 소대로 구성되었고, 소속 병력이 200명이었다.⁴⁸⁾ 중대본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원을 제외하고⁴⁹⁾ 1개 소대 병력을 추

48) 세부 인원은 중대장 1인, 소대장 4인, 정교 1인, 부교 5인, 참교 9인, 병졸 180인이다.(『관보』 광무 4년 7월 27일자).

49) 중대장 1인, 정교, 부교, 참교 각 1인.

론하면 대략 49명이었다.⁵⁰⁾ <표 2>의 차출 소대장 수에 1개 소대 병력 49명을 대입하면, 1902년에는 1,000여 명, 1903년에는 1,400여 명이 징상된 것으로 추산된다.

부대 구성은 1902년의 경우 강화 진위대(진위 제1연대 제1대대)와 원주 진위대(진위 제5연대 제1대대), 전주 진위대(진위 제2연대 제3대대)가 중심이 되었고, 1903년의 경우 강화와 원주 진위대에 더해 평양 진위대(진위 제4연대)가 주축을 이루었다.

칭경예식의 관병식을 위한 임시혼성여단은 중앙군인 친위대와 시위대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었다.⁵¹⁾ 지방의 진위대는 칭경예식을 위해 굳이 도성에 징상할 필요가 없었다. 혼성여단에 진위대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병력은 도성과 가까운 경기도의 진위대를 중심으로 징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종은 국경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진위대에서 병력을 징상하였다. 이는 도성 방위를 위해 강화도의 친군 심영뿐만 아니라 평양의 친군 서영까지 동원했던 갑오개혁 이전 고종의 지방군 활용과 같은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제 황권의 권위를 높이고 황권 수호의 태세를 갖추기 위한 고종의 일관된 포석이었던 것이다.⁵²⁾

50) 세부 인원은 소대장 1인, 부교 1인, 참교 2인, 병졸 45인이다.

51) 당시 중앙군인 친위대와 시위대는 모두 합쳐 보병 6개 대대-30개 중대-120개 소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52) 김항기, 「개항기(1876~1910) 중앙권력의 江華지역 군대 활용 양상 변화와 그 성격」, 『동국사학』 78,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260쪽.

3. 대한제국기 징상대의 설치와 운영

가. 징상대의 도성 상주와 중앙군 역할

앞 장에서 언급한 진위대의 징상 사례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진행된 지방군 징상이었다. 그런데 대한제국 시기에 지방군 징상의 주종을 이룬 것은 그보다는 특정 진위대 병력이 수도에 상주하면서 중앙군 역할을 한 경우였다. 이는 평양 진위대를 평양에 주둔하는 독립대와 도성에 소집된 징상대로 나누어 표기한 1901년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⁵³⁾ 또한, 도성에 상주할 평양 징상대 병력을 위해 병영을 신축한 기록도 있다.⁵⁴⁾

지방 진위대가 어느 시점부터 도성에 상주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각부청의서존안』에 평양 진위대의 상주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다.

a) “本月三十日(1899년 10월 30일) 軍部大臣署理 一百七十六號 照會를 接準호은즉 內開 平壤隊 徵上兵 費加支出 事로 業經照會이온 바 … 留京兵餉은 萬倍時急호와 茲更仰照호오니 … 查在京饋餉에 經用이 有異호고 換隊徵上에 費額이 亦多호야 該隊原預算에 對호야 不足이 生호은 理所必至라”⁵⁵⁾

53) “軍部 照會據호야 茲庸發訓호니 本年度 平壤獨立隊 及 徵上隊 將卒 俸給과 被服費 中 …”(『公文編案』 92책, 광무 5년 2월 12일).

54) 평양 징상대 병영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선오, 장규식, 「대한제국기 중앙군 병영 배치와 그 정치적 함의」, 『중앙사론』 62, 중앙사학연구소, 2024, 114~117쪽 참고.

55) 『各部請議書存案』 13책, 광무 3년 11월 2일.

b) “上月二十一日(1900년 9월 21일) 軍部大臣 第四百十六號 照會를 接準호은즉 內開 元帥府 會計局總長 第四十一號 照會 內開에 卽接 軍務局總長 李鍾健 照會 則 內開에 本月七日(1900년 10월 7일) 本局 謹奏 鎮衛第四聯隊第一大隊兵 二個中隊 已爲徵上 而本 鎮衛隊 現在兵 三個中隊 中 二個中隊 加派上來事 知委 事로 … 該兵上來後 支接等節을 預令措辦事로 軍部에 知照호시물 爲要等因仰 照호오니 … 該將士卒의 到隊日子가 在於 九月十七日이읍기 自同 日起호야 至十二月末日 經費 九千七百九十元三十九錢을 曾於徵上 隊費 中에 一切增額 支撥호시물 …”⁵⁶⁾

a)는 1899년 10월 평양 진위대의 편제가 2개 중대에서 5개 중대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평양 진위대의 경비를 예비금에서 지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군부의 청의서이다. 이 청의서에 나오는 ‘留京兵餉’과 ‘換隊徵上’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평양 진위대 병력 중 도성에 머무는 병력이 있었고, 일정 기간마다 교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문이 작성된 1899년 11월 이전의 일이다.

b)는 1900년 평양 징상대 2개 중대 병력 외에 평양 주둔 진위대 3개 중대 중 2개 중대를 추가로 징상했기에, 추가 징상 병력이 도성에 도착한 9월 17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경비를 증액해 줄 것을 군부가 의정부에 청의(請議)한 문서이다. 이를 통해 1900년 9월 이전에 평양 진위대 2개 중대 병력이 징상되어 도성에 상주했고, 9월부터 그 병력이 4개 중대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두 기사를 통해 1899년 11월 이전 시점부터 평양 진위대 병력 일부가 도성에 교대로 주둔하기 시작했고, 1900년에 이르러 그 규모가 2개 중대에서 4개 중대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56) 『各部請議書存案』 17책, 광무 4년 10월 14일.

있다. 1899년 시점의 평양 진위대 징상 병력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 규모가 2개 중대로 재편되었는지는 1899년 10월과 1900년 5월에 있었던 평양 진위대 장졸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은 관보에 기재된 1899년 10월 3일과 1900년 5월 5일 도성에서 진행된 평양 징상대 훈련에 참석한 장교의 명단이다.

<표 3> 평양 진위대 도성 훈련 참석 장교 명단

시점	대대장	대대 부관	대대 향관	중대장	대대附(소대장)	
1899년 10월	참령 구연항	부위 박기흡	1등군사 김응룡	정위 정관조	부위 한성교	부위 방흥주
				정위 이창환	부위 김용서	참위 홍창걸
					참위 박정옥	
1900년 5월	참령 구연항	부위 박기흡	1등군사 김응룡	정위 이창환	부위 한성교	부위 방흥주
					부위 김용서	부위 홍창걸
					참위 박정옥	참위 권성찬
		참위 여상률	참위 조순국			

* 자료 : 『관보』 광무 3년 10월 7일, 4년 5월 14일자.

<표 3>을 통해 1899년 10월 시점에 평양 진위대 소속 2개 중대-8개 소대 병력 중 5개 소대 병력이 도성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00년 5월 이전에 평양 진위대 3개 소대 병력이 추가로 도성에 징상되어 2개 중대-8개 소대로 완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1900년 9월 이후 4개 중대 규모로 운영되던 평양 징상대는 1901년 3월 2개 대대 규모로 증편되었다. 앞서 원수부는 1900년 9월과 190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 진위대 2개 대대

57) 3개 소대가 도성으로 추가로 징상되면서 생긴 평안도 지역 지방군의 공백은 1900년 5월에 편성이 완료된 3개 중대 병력이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를 추가 설치하였다. 그리고 기존 평양 진위대와 함께 진위 제4연대를 구성하던 의주와 강계의 진위대를 독립시켜 진위 제6연대를 구성하고, 평양에 새로 설치된 2개 대대를 진위 제4연대에 배속시켰다.⁵⁸⁾ 그와 함께 원수부는 1900년 9월에 새로 설치된 평양 진위대대를 징상하여 도성에 주둔시켰고, 1901년 2월에 설치된 진위대대를 평양에 주둔하게 했다.⁵⁹⁾

평양 진위대 병력이 징상대로서 도성에 상주하게 된 배경에는 1899년에 발발한 의화단 사건이 있었다.⁶⁰⁾ 의화단 사건으로 인해 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유민이나 도적의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의화단 사건의 영향을 받아 대한제국 내부의 소규모 민란이 대규모 반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한제국에 내란이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처럼 외세가 개입할 가능성이 컸다. 그렇게 되면 경운궁 환궁 이후 조성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깨어져 황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고종은 군사력의 확충을 통해 도성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각지에 파병할 수 있는 예비대를 확보하려 하였다.⁶¹⁾

58) 『관보』 광무 4년 9월 21일, 5년 2월 19일자.

59) “準此查^ㄴ오니 增設一大隊를 當以各鎮衛隊 預算之例로 算定이온바 前此已設之獨立大隊(1900년 9월에 설치된 부대)를 今已 徵上^ㄴ야 在京宿衛^ㄴ오니”(『各部請議書存案』 18책, 광무 5년 3월 13일).

60) 이는 아래와 같이 1899년 10월에 평양 진위대 편제를 5개 중대로 증편할 때 발표한 고종의 조칙과 1900년 6월 이에 대해 일본공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양은 곧 관서(關西)의 요충지이므로 외침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 는 안 된다.”(『고종실록』 권 39, 광무 3년 10월 12일).

“韓國 정부는 平壤의 군사력을 현재의 두 배로 하여 2 大隊를 증원하고 지방에서 3 大隊의 병력을 창설하여 淸國과의 국경에 주둔시키기로 결정했음. 이러한 증원의 목적은 韓國 땅에 들어오는 義和團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음.”(『平壤鎮衛隊 增強에 관한 件』, 『주한 일본공사관기록』 15권, 1900년 6월 18일).

61) 문준호, 「러일전쟁 이전 대한제국 원수부의 군무정책 강화와 군사운영의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고종이 원하는 규모로 중앙군을 증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고종은 지방 예산을 경비로 동원할 수 있는 진위대 병력을 활용해 도성 방위 전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중앙군을 대신해 지방에 파병할 병력을 확보하고자 했다.⁶²⁾

이 같은 정황은 평양 징상대의 규모가 증가하는 시점이 평양에 진위대가 추가로 배치되는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평양 진위대의 징상 규모가 2개 중대가 되는 시점은 평양 진위대의 편제가 2개 중대에서 5개 중대로 증가하는 시점(1899년 11월~1900년 5월)과 일치하며, 징상 병력이 4개 중대로 증가하는 시점은 1900년 9월 평양에 진위대 1개 대대가 추가되는 시점과 맞물렸다. 그리고 징상대가 2개 대대가 되는 시점 또한 평양에 세 번째 진위대대가 설치되는 시점과 동일했다.

이와 같이 고종은 평양 진위대의 주력을 도성에 상주시켜 황궁 시위에 투입하고, 유사시 지방으로 파병하는 등 중앙군과 임무를 분담토록 하였다. 그것은 이 시기 평양 징상대가 사실상 중앙군으로서 전제 황권을 직접적으로 수호하는 군대로 운영되었음을 의미하였다.⁶³⁾

성격」, 『군사』 1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38~44쪽 ; 서진교, 「대한제국기 정치지배세력과 정국운영-군비강화책의 추진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6, 49~50쪽 ; 玄光浩, 「大韓帝國期 徵兵制論議와 그 性格」,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연구회, 1999, 171쪽.

62) 1904년 3월 고종은 러일전쟁의 여파로 함경도 일대의 치안이 불안해지자, 치안 유지를 위해 평양 징상대 1개 대대를 함경도로 파견했다. (이선오, 2023, 앞의 논문, 27쪽).

63) 이선오, 2023, 앞의 논문, 28쪽.

나. 전제 황권의 균열과 징상대의 증편

1904년 2월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그 직후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해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의 체결을 강요했다. 더불어 대한제국의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육군 중좌 노즈 시즈타케(野津鎮武)를 군부 고문으로 고용할 것을 강요했다. 군부 고문이 된 노즈는 효율적인 강군(強軍) 양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군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고종은 이를 수용해 군제 개혁을 논의할 기구인 군제의정소(軍制議政所)를 설치하고, 군부 고문 노즈, 육군 부장 민영환(閔泳煥)을 비롯해 장관급, 영관급 장교 12명을⁶⁴⁾ 군제의정관(軍制議政官)으로 임명했다.⁶⁵⁾

1904년 9월 군제의정소의 논의에 따라 군부와 원수부에 대한 개편이 진행되어, 기존 원수부가 가지고 있던 군정권과 군령권이 모두 군부로 이관되었다. 대신 원수부에 부원수(副元帥) 직을 신설하고 부원수로 하여금 군대의 검열을 담당토록 하였다.⁶⁶⁾

군사 행정 부서의 개편을 완료한 군제의정소는 이듬해인 1905년 4월 대한제국군에 대한 대대적인 군축을 진행했다. 중앙군인 친위대와 시위대 중 친위대를 완전히 폐지하고, 시위대는 병력을 1개 연대-3개 대대-15개 중대-60개 소대 3,000여 명 규모

64) 군제의정관에 임명된 12명은 군부 고문 노즈, 육군 부장 민영환, 육군 부장 이지용(李址鎔), 육군 부장 이윤용(李允用), 육군 부장 민영기(閔泳綺), 육군 부장 권중현(權重顯), 육군 참장 박계순(朴齊純), 육군 참장 구영조(具永祖), 육군 참장 엄준원(嚴俊源), 육군 참장 현영운(玄暎運), 육군 참령 이병무(李秉武), 육군 참령 이희두(李熙斗)였다. 그 후 박계순을 대신하여 육군 부장 이종건(李鍾健)과 육군 부장 윤용렬(尹雄烈), 육군 참장 엄주익(嚴柱益), 육군 참장 김승규(金昇圭)가 추가로 군제의정관에 임명되었다. (『관보』 광무 8년 8월 29일, 10월 19일, 9년 1월 19일자).

65) 이선오, 2023, 앞의 논문, 29쪽.

66) 이선오, 2023, 앞의 논문, 29-30쪽.

에서 1개 연대-3개 대대-12개 중대-48개 소대 2,400여 명으로 축소하였다. 진위대 역시 6개 연대-18개 대대 18,000여 명 규모에서 8개 대대 4,800여 명 규모로 축소하였다.⁶⁷⁾ 그 결과 군부에 대한 고종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고종의 전제 황권을 지탱할 군사적 기반이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다.

진위대의 대규모 군축으로 평양 징상대의 경우처럼 특정 진위대를 중심으로 징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진위대의 징상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고종은 군축이 진행되기 직전 진위대의 징상을 명령하면서 진위대의 징상을 유지할 것을 공표했다.⁶⁸⁾

8개 대대 규모의 지방 진위대가 징상대를 어떻게 구성했으며 어느 정도 병력을 징상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칙령이나 공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905년 4월 이후 작성된 정부의 공문서와 예산안을 통해 그 규모와 구성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1905년 4월부터 1907년 4월까지 『관보』, 『군부내거문』 등의 기록에서 징상대 장교와 관련된 내용이 30여 건 등장한다. 이 기록에는 당시 징상대 소속 장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명단과 소속 부대를 정리한 것이 <표 4>이고, 그 장교의 원소속 부대와 비교하여 징상대의 편제를 재구성한 것이 <표 5>이다.

67) 이선오, 2023, 앞의 논문, 31-32쪽.

68) “진위대를 불러올리는 일을 방금 군부의 주청으로 인하여 관련해서 재결을 내려보냈는데 …”(『고종실록』 권 45, 광무 9년 4월 16일).

〈표 4〉 징상대 장교 명단(1905.04.-1907.08.)

날짜	계급	성명	소속(징상대)	직위	소속(원부대)
1905.05.	육군 보병 참위	손은영(孫殷永)	징상 제1대대	소대장	진위 제1대대
1905.06.	육군 보병 부위	변영두(邊永斗)	진위 제1대대 징상대	附	진위 제1대대
1905.07.	육군 보병 참위	김정규(金鼎奎)	진위 제7대대 징상대	소대장	진위 제7대대
1905.09.	육군 보병 참위	김득성(金得成)	진위 제7대대 징상대	附	진위 제7대대
1905.10.	육군 보병 참령	이기표(李其豹)	징상 제1대대	대대장	진위 제1대대
	육군 보병 참위	임명호(任命鎬)	징상 제1대대	소대장	진위 제1대대
1906.06.	육군 보병 참령	신창희(申昌熙)	징상 제2대대	대대장	진위 제4대대
	육군 보병 정위	이수봉(李守鳳)	징상 제2대대	중대장	진위 제4대대
	육군 보병 참위	김종복(金鍾復)	징상 제2대대	소대장	진위 제4대대
1906.10.	육군 보병 정위	김교익(金敎翼)	징상 제1대대	중대장	진위 제1대대
	육군 보병 정위	이완중(李完鍾)	징상 제2대대	중대장	진위 제4대대
	육군 보병 부위	최홍기(崔鴻基)	징상 제2대대	附	진위 제5대대
1906.11.	육군 보병 참위	유석풍(柳錫豐)	징상 제1대대	附	진위 제2대대
1907.01.	육군 보병 부위	마준영(馬駿英)	징상 제3대대		진위 제7대대
1907.01.	육군 보병 참령	김연시(金演誓)	징상 제2대대	대대장	진위 제4대대
1907.01.	육군 보병 정위	신극(申楮)	징상 제2대대	중대장	진위 제4대대
1907.02.	육군 보병 정위	원형상(元亨常)	징상 제2대대	중대장	진위 제5대대
	육군 보병 참위	이장녕(李章寧)	징상 제2대대	소대장	진위 제4대대
	육군 보병 참위	정인택(鄭寅宅)	징상 제1대대	소대장	진위 제2대대
	육군 보병 참위	어영선(魚永善)	징상 제1대대	소대장	진위 제1대대
	육군 보병 참위	이병찬(李秉贊)	징상 제3대대	소대장	진위 제6대대
	육군 보병 참위	이규병(李圭丙)	징상 제1대대	소대장	진위 제1대대
	육군 보병 참위	권중관(權重寬)	징상 제2대대	소대장	진위 제4대대
	육군 보병 참위	윤원영(尹永元)	징상 제2대대	소대장	진위 제4대대
	육군 보병 참위	조태희(趙兌熙)	징상 제2대대	소대장	진위 제4대대
1907.03.	육군 보병 참위	유석풍(柳錫農)	징상 제1대대	소대장	진위 제2대대
	육군 보병 부위	태유선(太有善)	징상 제2대대	소대장	진위 제5대대
	육군 보병 부위	오승근(吳承根)	징상 제3대대	소대장	진위 제7대대

* 자료 : 『관보』, 『훈지기안』, 『탁지부내거안』, 『조첩』, 『군부내거문』

〈표 5〉 진위대 징상대의 구성

원소속	징상 제1대대		징상 제2대대		징상 제3대대	
	진위 제1대대 (수원)	진위 제2대대 (청주)	진위 제4대대 (광주)	진위 제5대대 (원주)	진위 제6대대 (황주)	진위 제7대대 (평양)

이를 통해 종래 평양 진위대 만을 대상으로 했던 징상대 차출이 거의 모든 지방 진위대로 확대되고, 그 규모도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징상대의 구체적인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군부 예산안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1907년도 군부 예산에 징상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표 6>에 나와 있듯이 징상대의 예산과 시위대의 예산이 비슷했다. 예산 세부 항목 상의 징상대와 시위대 하사관과 병졸의 급여는 42,290원으로 동일했다.

<표 6> 시위대와 징상대의 급료 비교 (1907. 군부 예산)

	시위대	징상대
총 예산	240,406圓	241,924圓
하사졸급료	42,290圓	42,290圓

* 자료 : 『관보』 광무 10년 11월 22일자.

당시 시위대는 장교 72명에 준사관 3명, 하사관과 병졸이 2,4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종은 진위대의 징상을 지시할 때, 징상된 진위대 병력의 급료를 중앙군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⁶⁹⁾ 이를 통해 징상대의 하사관과 병졸의 규모는 시위대와 동일한 2,418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부 편제 역시 시위대가 12개 중대로 구성되었던 것처럼 징상대도 12개 중대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위대 1개 중대의 정원이 206명이었고, 진위대 1개 중대 정원이 156명으로 50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1905년 4월 군축 과정에서 해산된 친위대나 평양 징상대 병력으로 보충한 것으로 추정된다.⁷⁰⁾

진위대의 군축에도 불구하고 징상대가 오히려 확대된 배경에

69) “진위대를 불러올리는 일을 … 해당 장졸들의 봉급과 경비는 중앙군의 규정대로 시행하라.”(『고종실록』 권 45, 광무 9년 4월 16일).

70) 이선오, 2023, 앞의 논문, 33~35쪽.

는 군대 내에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고종의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1904년 8월 원수부와 군부가 개편되면서 군대에 대한 고종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중앙군으로 시위대만 남기고 친위대를 폐지함으로써 고종은 본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군대의 절반을 잃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때문에 고종은 대한제국 황제로서 최소한의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한일의정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조항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진위대 징상에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했던 국방 업무 부담을 일본군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⁷¹⁾

고종은 군부가 완전히 친일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당시 상황과 지방 진위대를 비교적 자유롭게 차출할 수 있게 된 조건을 활용해 진위대의 징상을 확대했다.⁷²⁾ 진위대 병력의 약 40%를 징상하여 중앙 친위대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전제 황권의 군사적 기반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일본 주차군의 교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도성에 주둔한 주차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보병 2~3개 대대 규모로 추산된

71)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종실록』 권 44, 광무 8년 2월 23일).

72) 이는 군부의 수장인 군부대신의 명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04년 8월 이후에도 민영기(閔泳綺), 이용익(李容翊), 심상훈(沈相薰) 등 고종의 측근이 군부 대신에 임명되기도 했다.

다.⁷³⁾ 그러한 상황에서 1905년 4월 대규모 군축으로 중앙군이 3개 대대 규모로 축소되면서 대한제국 중앙군은 일본군에 대한 수적 우위를 상실하였다. 대한제국군이 일본군에 대한 수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본군으로부터 도성과 황궁을 지키는 것은 기대안망이었다. 전제 황권의 균열 위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종은 진위대를 징상하여 친위대를 대체함으로써 부족한 중앙군의 병력을 메우려 하였다.

다. 시위대의 징상대 흡수와 해산

1905년 4월 군비축소 이후 고종은 지방 진위대 병력의 약 40%를 징상하여 본인의 친위부대로 삼고 군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선 군제 개혁으로 이미 원수부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군대에 대한 고종의 영향력은 회복이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1907년 4월 군부는 대한제국군에 대한 2차 개편을 진행했다. 개편의 결과 1개 중대 소속 병력의 규모가 206명에서 151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중앙 시위대의 경우는 기존 1개 연대 규모에서 2개 연대로 증편되면서 병력 규모가 오히려 증가했다. 시위대가 2개 연대로 증가함에 따라 군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상위 편제인 시위훈성여단 편제를 추가했다. 지방 진위대의 경우, 제6대대가 황주에서 해주로 이동하고 중대 정원이 시위대와 동일한 151명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큰 변동은 없었다.⁷⁴⁾

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조선주차군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132~133쪽.

74) 『관보』 광무 11년 4월 25일자.

〈표 7〉 1907년도 군부 경정 예산

종목	원예산	변경예산	종목	원예산	변경예산
군부 본청	546,171	562,767.6	북청중성대	2,064	689.4
장총단	690	690	육군법원	8,100	8,100
시위연대	4,793	6,114	육군감옥	2,930	2,930
시위대	240,406	353,085	육군위생원	4,103	5,339
징상대	241,924	78,248	군기창	17,667	17,667
기병대	18,091	19,335	무관학교	36,135	36,247
포병대	18,549	19,776	연성학교	62,015	61,241
공병대	20,856	22,329	유년학교	22,794	22,882
시위군악대	11,229	11,714	시중무관부	9,259	9,893
헌병사령부	3,584	3,608	배중무관부	7,942	8,180
헌병대	22,934	35,086	친왕부	1,440	2,421
진위대	201,482	224,710	치중병대	6,051	6,051
			여단사령부		3,106

* 자료 : 『관보』 광무 10년 11월 22일, 11년 5월 10일자.

(단위 : 圓)

1907년 4월 군대 개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표 7〉과 같이 징상대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4월 이전에 집행된 징상대 예산을 뺀다면, 이는 징상대의 해체를 의미했다. 반대로 시위대의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체된 징상대 병력이 증편된 시위 제2연대로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진위대의 예산은 대략 10%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다. 징상대가 해체되었다는 것은 징상대에 소속되어 있던 진위대 장교와 사병이 모두 원부대로 귀환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변경된 예산에는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⁷⁵⁾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대 개편 이후 진위대 장교의 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편제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해체된 징상대 병력이 원소속 진위대로 복귀하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75) 진위대의 예산이 10% 가량 증가한 까닭은 1905년 4월 개편 당시 설치되지 않았던 진위 보병 제8대대가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 진위대 장교 임명 상황(1907.04.30)

	대대장	대대 부관	대대 의관	대대 향관	중대장	소대장
제1대대	1	1	1	1	2	8
제2대대	1	1	1	1	2	8
제3대대	1	1	1	1	4	16
제4대대	1	1	1	1	2	8
제5대대	1	1	1	1	2	8
제6대대	1	1	1	1	2	8
제7대대	1	1	1	1	2	8
제8대대	1	1	1	1	4	16

* 자료 : 『승정원일기』 고종 44년 3월 18일(기유)(음)

(단위 : 명)

그렇다면 해체된 징상대의 병력은 어디로 간 것일까? 1907년 변경된 군부 예산과 더불어 〈표 9〉의 시위 제2연대에 임명된 장교들의 이전 소속이 그 단서를 제공한다. 〈표 9〉에 따르면 신설된 시위 제2연대에 임명된 장교는 대부분 진위대 출신이었다.⁷⁶⁾ 이를 통해 해체된 징상대 3개 대대 병력이 진위대 본대로 귀환하지 않고 증편된 시위 제2연대에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징상대가 시위대로 편입된 뒤, 진위대 병력에 대한 추가 보충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9〉 시위 제2연대 임명 장교 이전 소속

현 소속	정원	직전 소속 부대	인원
시위 보병 제2연대 제1대대	24	진위 제1대대	11
		진위 제2대대	7
		기타 부대	6
시위 보병 제2연대 제2대대	24	진위 제4대대	9
		진위 제5대대	7
		기타 부대	8
시위 보병 제2연대 제3대대	24	진위 제6대대	9
		진위 제7대대	13
		기타 부대	2

* 자료 : 『관보』

(단위 : 명)

76) 이선오, 2023, 앞의 논문, 35~38쪽.

고종은 중앙군과 지방군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던 징상대를 통해 군부와의 접점을 유지하며 군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런데 징상대의 시위대 편입으로 고종은 군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징상대가 중앙군에 편입되었어도 군에 대한 고종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는 1907년 7월 고종이 강제로 퇴위할 당시 퇴위에 가장 먼저 반발한 부대가 징상대 출신 시위 제2연대 제3대대였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위 제2연대 제3대대는 1905년 4월 군비축소 이전부터 징상되어 활동한 평양 진위대 출신 병력이 포함되어 있던 부대였기에 다른 부대보다 고종의 영향력이 더욱 짙게 남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의 봉기 계획은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했지만, 대신 시위 제1연대 제3대대가 고종의 퇴위에 반대하는 민중 봉기에 참여하여 일본군과 소규모 교전을 벌였다.⁷⁷⁾

시위대의 봉기가 있고 난 뒤 일본은 대한제국의 안정적인 병합을 위해서는 군대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은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의 체결을 강요하고, 부속 조약으로 군대 해산에 대한 각서를 작성했다. 해당 각서에 따라 군부는 황실근위대로 개편될 보병 1개 대대 병력을 제외한 중앙군과 지방군 모두를 해산할 것을 결정했다.⁷⁸⁾

1907년 8월 1일 진행된 군대 해산 당시 징상대 출신 시위대의 대응은 제각각이었다. 먼저 근위대로 개편될 예정이었던 시위 제2연대 제2대대는 해산식에 참석하지도, 해산에 반발하여 봉기하지도 않았다. 시위 제2연대 제3대대의 경우 앞선 봉기 불발의 영향으로 일본군이 이들의 재봉기에 대비하고 있었기에 일부 불

77) 이선우, 2023, 앞의 논문, 38쪽.

78) 심현용, 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28~30쪽.

참자를 제외하고는 무기력하게 해산되었다.⁷⁹⁾

가장 먼저 해산에 반발하여 봉기한 시위 제1연대 제1대대와 함께 군대 해산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부대는 시위 제2연대 제1대대였다. 해산 소식을 들은 중대장 오의선(吳儀善)이 자결하고 견습 참위 이충순(李忠純)과 남상덕(南相憲) 등이 항전을 지휘한 시위 제2연대 제1대대는 장교들의 적극적인 항쟁이 돋보이는 부대였다. 『관보』에 군대 해산 과정에서 사망한 장교 11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11명 모두 제2연대 제1대대 소속 장교였다.⁸⁰⁾ 이렇게 징상대 출신 시위대 장병 다수는 해산되는 그날까지 고종과 운명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79) “오전 10시 징상 제2연대 제3대대(시위 제2연대 제3대대)는 훈련원을 향하여 출발했다는 보고에 접하고 대관정의 전 병영에 있는 보병대는 다른 곳에 사용해도 지장 없게 되어 그 보병 1중대를 사카베 소좌의 지휘에 속하게 했습니다.”(『南大門 부근 전투보고 件』, 『통감부문서』 3권, 1907년 8월 3일).

80)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위 오의선, 권중협(權重協)

참위 장세정(張世禎), 노덕세(盧德世), 이준영(李峻永), 이규병(李圭丙),

이한승(李漢承)

견습 참위 이금주(李肯周), 이충순, 남상덕, 백보용(白普鏞)

(『관보』 융희 원년 9월 21일자).

4. 결론

1885년부터 시작된 지방군의 징상은 고종의 지방군 활용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고종이 지방군 징상을 시작할 무렵 조선의 중앙군은 군제 개혁 과정에서 청나라를 비롯한 각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중앙군의 정치적인 분열 속에서 고종은 자신만을 위해 움직일 군대를 원했고, 이를 지방군 징상에서 찾았다. 고종은 지방군을 징상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신식 군사 훈련을 하고, 이들을 본대로 돌려보내 신식 훈련 교관으로 활용하는 한편으로, 갈수록 불안해지는 지방 치안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렇게 고종은 징상을 통해 지방군에 신식 군사 훈련을 보급하고, 유사시 도성 방위를 위한 예비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893년 이후 유사시 중앙군을 대신해 지방에 파병하거나, 파병된 중앙군의 빈 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지방군의 징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갑오개혁으로 군대에 대한 고종의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중단된 지방군 징상은 대한제국 수립 후 지방군이 확충되면서 재개되었다. 군사 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성에 상경했던 이전과 달리, 이 시기의 징상은 지방 진위대 병력이 도성에 상주하는 형태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징상대의 출현과 함께 징상된 지방군의 성격 또한 도성 방위를 위한 예비대 역할에서 직접 도성 방위와 황궁 숙위를 담당하는 병력으로 변하였다. 이를 통해 고종은 친위대와 시위대에 이은 제3의 중앙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예산과 병력 수급 문제로 확충이 어려웠던 중앙군에 2개 대대 병력의 징상대를 추가한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 지방 진위대의 징상은 단순히 도성 주둔 병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명성황후 국장의 시위를 담당하기 위한 징상이 있었고, 민란 진압을 위해 타지방에 출병하는 진위대 병력을 격려하고 검열하기 위한 징상도 있었다. 결국 취소되기는 했지만 1902년, 1903년의 ‘어극 40년 칭경 예식’ 관병식에는 고종의 권위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중앙군은 물론 지방군의 대규모 징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 시기 지방군의 징상은 중앙군 병력의 추가 확보를 넘어 황권 강화와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었다.

1904년 9월 원수부의 군정권과 군령권이 모두 군부로 이관되고, 1905년 4월 군제 개편으로 중앙의 친위대가 폐지되면서 고종의 군대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고종은 징상 진위대 병력을 2개 대대에서 3개 대대로 증편하고, 진위대 병력의 약 40%를 징상함으로써 친위대의 공백을 메우려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고종의 시도는 1907년 4월 징상 진위대가 시위대로 흡수되면서 또다시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1907년 7월 고종이 강제 퇴위하고, 대한제국 군대도 8월에 해산되면서 진위대 징상을 통해 황권 수호를 위한 병력을 확보하려 했던 고종의 군사 정책은 끝을 맺었다.

이와 같이 고종 재위기 지방군의 징상은 고종의 군사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왕권 강화를 위해 군대를 활용했던 정조나 헌종 등의 왕들이 중앙군을 개편하거나 경기도의 지방군을 동원했던 것과 달리, 고종은 평양이나 청주 등 경기도 이외 지역의 지방군까지 폭넓게 활용하였다. 지방군 징상 정책은 고종이 강제로 퇴위하는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지방군의 징상은 원수부의 설치와 더불어 왕권 강화를 위한 고종의 군사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대전회통』
 『통감부문서』
 『구한국의외교문서』
 『兩湖電記』
 『관보』(奎17289)
 『일성록』(奎12816)
 『各部請議書存案』(奎17715)
 『各部指令存案』(奎17750의 1)
 『公文編案』(奎18154)
 『軍部來去文』(奎17786)
 『元帥府來去案』(奎17809)
 『照牒』(奎17277의 10)
 『度支部來去案』(奎17766)
 『訓指起案』(奎17277의 6)
 『訓令編案』(奎178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조선주차군역사』,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

김응호, 『조선초기 중앙군 운용 연구』, 파주 : 경인문화사, 2023

김중수,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 訓練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서울 : 해안, 2003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서울 : 국학자료원, 2002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서울 : 해안, 2000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심현용, 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9(근·현대 I)』, 계룡 : 육군본부, 2012

최병욱,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서울 : 경인문화사, 2000

- 최창언, 『대한제국의 기념 사적과 칭경예식의 관병식을 위한 연구』,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21
- 김정웅, “조선초기 군사들의 하번(下番) 시 복무에 관한 연구”, 『군사
연구』 146(2018) : 119-146
doi.org/10.17934/jmhs..146.201812.119
- 김항기, “개항기(1876~1910) 중앙권력의 江華지역 군대 활용 양상 변
화와 그 성격”, 『동국사학』 78(2023) : 245-273
doi.org/10.22912/dgsh.2023..78.245
- 문준호, “러일전쟁 이전 대한제국 원수부의 군무정책 강화와 군사운영
의 성격”, 『군사』 109(2018) : 33-80
doi.org/10.29212/mh.2018..109.33
- 서진교, “대한제국기 정치지배세력과 정국운영-군비강화책의 추진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2006) :
36-70
uci.or.kr//G901:A-0001837765@N2M
- 서태원, “강화지방대 강화진위대 연구(1896~1907)”, 『한국사연구』
168(2015) : :177-219
uci.or.kr//G901:A-0003708313@N2M
- 이선오, “대한제국기 평양 진위대의 설치와 운영”,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23
- 이선오, 장규식, “대한제국기 중앙군 병영 배치와 그 정치적 함의”,
『중앙사론』 62(2024) : 97-134
doi.org/10.46823/cahs.2024.62.97
- 玄光浩, “大韓帝國期 徵兵制論議와 그 性格”, 『한국사연구』 105(1999)
: 151-187
uci.or.kr//I410-ECN-0102-2008-910-001098543@N2M

〈Abstract〉

King Gojong's attempt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and the central summons of local forces

Lee, Sun-O, Chang, Kyu-Sik

Following the Imo Incident of 1882, the Joseon government simultaneously pursued the reconstruc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central army. King Gojong sought to check the influence of the Qing and foster troops to be utilized as his personal guard. Through this conscription, Gojong aim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safeguarding royal power outside the influence of the Qing.

The conscription of local troops, which had been halted with the disbandment of existing local troops due to the Gabo Reforms, resumed after the proclamation of the Korean Empire. During this period, some of the garrison troops stationed in the provinces were permanently stationed in the capital and utilized like the central army. The conscription of local troops was a policy that symbolized Gojong's military policy of utilizing conscripted forces as a means of strengthening imperial power.

After the Russo-Japanese War, with his influence over the military weakened, Gojong expanded the conscription of local troops to fill the void left by the disbanded central imperial guard due to military reductions. However, in April 1907, the conscripted units were dissolved and incorporated into the Royal Guards

Division, ultimately leading to the failure of Gojong's efforts to secure an independent military base.

Keywords : Go-jong, Jing-sang(徵上), Jinwi-dae, Local army, Mordernization of the Military system

논문투고일 : 2025.03.07. 심사완료일 : 2025.05.26. 게재확정일 : 2025.06.04.